

K-IFRS 도입이 건설업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조은주(군산대) · 이우창(군산대) · 박경원(군산대) · 양동재(군산대)

I. 서론

건설업의 경우 K-IFRS 도입에 따라 위와 같은 일반적인 영향 이외에도 상당한 부분에서 다양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유순미와 김현진 2010). 예컨대, 분양공사에 대한 회계처리의 변화, 미(초과)청구공사 계정의 신설, 금융보증부채, 충당부채 인식 강화 등 달라진 부분이 적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IFRS 도입에 따라 달라진 회계처리가 건설업, 특히 건설업의 재무상태와 영업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우선 종합 건설업에 해당하는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표본에 대해 도입 전후 영업성과 변수들과 부채비율 변수들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직접적인 K-IFRS 적용 대상인 상장기업 표본을 중심으로 다양한 회귀분석들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회귀분석의 종속변수는 영업성과 변수와 부채비율 변수이며, 주된 독립변수는 도입여부 더미 및 분양매출비율 등이다. 이를 통해 K-IFRS의 도입이 건설업에 속한 기업들의 재무구조나 영업성과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정 기업, 특정 사안을 중심으로 사례분석을 시도한 선행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다수의 기업 표본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 사례연구들이 제시하지 못한 건설업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영향을 포착해봄으로써 관련 연구를 풍부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연구가설

2.1 K-IFRS 도입에 따른 건설업 회계처리의 변화

K-IFRS 도입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자체분양공사의 수익인식 방법에 있어서의 변화이다. 기존 K-GAAP의 경우 모든 건설공사 계약(도급 및 분양 공사)에 대해 진행기준으로 공사수익을 인식하였으나 현행 K-IFRS의 경우에는 분양공사(부동산 건설약정) 등 예약매출의 경우 인도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할 가능성이 커졌다. 우리나라의 아파트 분양공사의 경우 매수자가 설계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제한적이어서 건설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K-GAAP의 경우 발주처에 대한 청구분과 미청구분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공사미수금으로 인식했으나, K-IFRS의 경우에는 대금청구를 회계상 거래로 파악하여 공사미수금과 진행청구액을 인식하고, 진행청구액은 다시 미성공사의 차감계정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누적원가+인식손익’인 미성공사가 진행청구액을 상회할 경우 미청구공사(자산)로, 하회할 경우 초과청구공사(부채)로 총액 인식토록 하고 있으며, 청구금액과 회수금액을 비교하여 공사미수금과 공사선수금을 계상토록 하고 있다.

건설계약에 대한 직접적인 회계처리기준의 변경은 아니지만, 다양한 형태의 보증(PF대출보증, 조합사업비 대출보증, 중도금 대출보증, 특수관계자 보증)이 많은 건설업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금융보증부채의 증가와 이에 대한 충당부채의 증가가 야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K-GAAP는 대출보증 등에 대해 경제적 손실의 발생가능성을 평가하여 그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발생가능성이 낮은 경우 주식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K-IFRS는 대출보증과 같은 금융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보증의 공정가치를 산출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급보증 및 소송 등에 대한 충당부채 인식 요건 역시 K-GAAP의 경우 경제적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매우 높을(통상 80%)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K-IFRS의 경우에는 경제적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을(통상 50%) 것을 요구하고 있어 우발부채의 부외효과를 축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2 선행연구

K-IFRS 도입과 건설업 회계처리에 관한 연구들이 다양한 편은 아니며, 그나마 사례연구들로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유순미와 김현진(2010)은 K-IFRS의 도입이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을 핵심 사안별로 점검하고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기존의 회계실무에서 새로 도입되는 K-IFRS를 적용하는데 필요한 조정절차와 이로 인해 재무제표가 받을 영향을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K-IFRS 최초 적용연도의 경우 이익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기간별 손익의 변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자체분양사업 비중이 높은 일부 건설업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충당부채 인식요건의 강화로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충당부채가 증가하고 PF지급보증 등 금융보증계약을 공정가치로 계상하도록 함으로써 전반적인 부채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증가된 충당부채 및 금융부채로 인하여 비용이 증가됨에 따라 수익성 저하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질지배력 기준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연결범위에 포함되는 종속회사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김한수 등(2010)은 K-IFRS 도입으로 건설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분양공사를 중심으로 도입효과를 살펴보았다. 그들은 K-IFRS 기준해석서 제 2115호에 따를 때 우리나라 대부분의 분양공사가 재화판매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후 분양공사를 진행기준에서 인도기준으로 변경할 경우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분양공사의 비중이 낮고 대상기간 동안 완성된 분양공사가 존재하지 않는 사례기업에서는 인도기준으로 조정할 경우 매출액, 세전이익, 매출액순이익률, 유동비율은 감소하며, 부채비율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분양공사의 비중이 높고 대상기간 동안 매년 완성된 분양공사가 존재하는 사례기업에서는 인도기준으로 조정할 경우 완성된 공사의 비중에 따라 매출액, 세전이익 및 매출액순이익률은 감소 또는 증가하며, 부채비율은 대체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도기준 하 분양수익과 진행기준 하 분양수익의 차이가 큰 기간일수록 수익성의 변동성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병욱과 최보람(2011)은 건설계약에 적용되는 K-IFRS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로 인해 검토할 필요가 있는 세무상 쟁점을 분석하였다. 그가 제시하고 있는 K-IFRS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 법령상 우리나라의 건설 및 분양계약은 완벽하게 보호되는 취소불능계약으로 공사수익을 진행기준으로 인식해야 하지만, K-IFRS에 의하면 진행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진행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분양계약과 동시에 건설사의 소유권이 수분양자에게 이전하는 것과 같은 제도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며, 현행 제도 하에서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부동산 개발에서 형식상 사업주체는 소규모의 시행사이지만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가 건설업체에 있으므로 분양수익의 인식이나 차입금의 부채계상 등과 같은 회계처리를 건설업체가 직접 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셋째, 지분제 재개발·재건축공사는 일반분양분에 대한 가격결정권이나 위험과 효익을 시공사가 지니므로 기본적으로 인도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나, 단일계약으로 이루어진 조합과 시공사 간의 재개발·재건축 공사계약에서 일반분양분에 대해 인도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계약의 병합과 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2.3 연구가설 설정

본 절에서는 K-IFRS 도입에 따른 주요 회계처리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이러한 변화가 건설 기업들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어떠한 미칠 것인지에 대해 예측해보고, 이를 가설로 설정하고자 한다. K-IFRS 도입이 건설업의 영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자. 우선 분양공사에 대하여 진행기준이 아닌 인도기준이 적용된다면 K-IFRS 최초 적용연도의 경우 완성되는 공사가 많지 않는 한 당기순이익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이후 분양공사가 완성되는 특정 기간에 따라 일시에 손익이 반영되기 때문에 기간별 손익의 변동성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분양사업의 비중이 높은 기업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즉, 매출 다변화 수준이 낮고 소수의 분양사업에 의존할수록 상대적으로 영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회계처리의 변화가 기업의 본질가치 혹은 영업현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즉, 단순한 기간 간 영업현금의 차이가 있지 않는 한 K-IFRS가 도입되었다고 영업현금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K-IFRS의 도입으로 인한 보증부채 및 충당부채의 증가는 비용의 증가를 수반하여 전반적으로 당기순이익을 하락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1 : K-IFRS 도입은 건설업의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 K-IFRS 도입은 건설업의 영업현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 K-IFRS 도입은 건설업의 당기순이익 변동 폭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제 K-IFRS 도입이 건설업의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분양공사에 대해 인도기준이 적용된다면 소유나 통제에 따는 위험과 효익이 구매자에게 완전히 이전될 때까지 매출을 인식할 수 없다. 그에 따라 사업장에 투입되는 공사대금은 완공시점까지 재고자산이 되고 계약금과 중도금 역시 선수금으로 계상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의 지연인식과 감소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부채비율의 상승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 지급보증 역시 K-IFRS 하에서는 확정부채(금융보증부채)가 되어 부채비율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개연성이 크며,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지급보증 등에 대한 인식범위가 확대되어 부외부채의 일부가 충당부채로 계상될 가능성 또한 커졌다. 또한 K-GAAP 하에서 ‘공사미수금-공사선수금’의 금액과 K-IFRS 하에서 ‘(공사미수금+미청구공사)-공사선수금+초과청구공사’의 금액은 동일하지만, 공사별 자산과 부채의 상계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과 부채가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부채비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부채비율, 총당부채비율, 특수한 총당부채(보증손실총당부채+공사손실총당부채+하자보수총당부채)의 비율로 구분하여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1 : K-IFRS 도입은 건설업의 부채비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 K-IFRS 도입은 건설업의 총당부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 K-IFRS 도입은 건설기업의 보증손실총당부채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별도의 가설로 설정하지는 않았으나 분양사업의 비중이 높고, 사업장의 수가 적은 기업일수록 보증부채와 총당부채가 많고 사업진행시기가 분산되지 않아 영업성과의 변동성 뿐만 아니라 부채비율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실증분석에서는 위의 가설들과 더불어 분양매출 수준이 영업성과와 부채비율에 미치는 영향력이 K-IFRS 도입 여부에 따라 다른지를 추가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K-IFRS 도입에 따른 건설 기업들의 재무구조 및 영업성과의 변화를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회귀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ROA_t(CFO_t, |\Delta ROA_t|) = \alpha_0 + \alpha_1 AD_t + \alpha_2 COND_t + \alpha_3 COND_t * AD_t + \alpha_4 TAN_t + \alpha_5 SIZE_t + \alpha_6 LEV_{t-1} + \alpha_7 FOR_t + \epsilon_t \quad \text{----- 식(1)}$$

$$LEV_t(PRO_t, SPRO_t) = \beta_0 + \beta_1 AD_t + \beta_2 COND_t + \beta_3 COND_t * AD_t + \beta_4 TAN_t + \beta_5 SIZE_t + \beta_6 LEV_{t-1} + \beta_7 FOR_t + \epsilon_t \quad \text{----- 식(2)}$$

<변수 정의>

AD	: K-IFRS 도입 이후이면 1, 아니면 0
ROA	: 당기순이익/총자산
CFO	: 영업활동현금흐름/총자산
ΔROA	: (당기순이익-전기순이익)/기초총자산
LEV	: 총부채/총자산
PRO	: 총총당부채/총자산
SPRO	: (보증손실총당부채+공사손실총당부채+하자보수총당부채)/총자산
COND	: 분양매출/매출액
TAN	: 유형자산/총자산
SIZE	: 총자산의 자연로그
LEVt-1	: 기초총부채/기초총자산
FOR	: 외국인지분율
ε	: 오류항

먼저 식(1)의 모형을 살펴보자. 종속변수들은 각각 당기순이익(ROA), 영업현금(CFO), 당기순손

익 변동의 절대값 ($|\Delta ROA|$)이다. 주된 관심변수는 K-IFRS 도입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AD), 분양매출수준(COND) 그리고 이들 변수의 상호작용변수(AD*COND)이다. 기타 통제변수로 유형자산비율(TAN), 기업규모(SIZE), 기초부채비율(LEV_{t-1}), 외국인지분율(FOR)을 포함하였다. 식(1)의 모형을 통해 K-IFRS가 영업성과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식(2)의 모형은 종속변수로 부채비율(LEV), 총당부채비율(PRO), 보증손실충당부채비율(SPRO)로 사용하였을 뿐 주요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에 있어서는 식(1)과 차이가 없다.

3.2 표본선정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속한 기업(상장기업 및 비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표본을 선정하였다.

- 1) 건설업 중 종합 건설업에 속한 기업
- 2) 결산일이 12월 말인 기업
- 3) 데이터베이스(KISVALUE)에 수록된 기업

연구대상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4년이다. 따라서 K-IFRS 도입 이전 2년(2009년, 2010년)과 도입 이후 2년(2011년, 2012년)이 연구대상이다. 위의 조건 1)은 건설업 중 종합 건설업이 아닌, 즉 전문직별 공사를 제외하기 위한 것이다. 전문직별 공사업의 경우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전기 및 통신 공사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건설장비 운영업으로서 일반적인 종합 건설업과 차이를 보이고 있기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조건 2)와 같이 표본을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한정된 이유는 표본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조건 3)은 자료 확보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위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연도 표본은 총 3,780개(상장기업 및 비상장기업)이다. 추가적으로 분석에 필요한 재무자료가 없는 관측치(총 996개)를 제거하였으며, 이상치(outliers)로 인한 불필요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각 변수별 상하 각 1%에 대하여 winsorizing 기법을 이용하여 조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최종표본은 총 2,784 기업-연도이다. 세부적으로 상장기업 표본은 152개(도입 이전 76개, 도입 이후 76개)이며, 비상장기업 표본은 2,632개(2011년 이전 1,258개, 2011년 이후 1,374개)이다.

IV. 실증분석결과

분량관계상 기술통계, 상관계수, 평균차이검증 결과는 생략한다. 본 연구는 K-IFRS 도입이 건설업 회계처리에 미친 영향을 재무구조와 영업성과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첫째, K-IFRS 도입이 기업의 재무구조, 특히 부채와 관련된 지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LEV, PRO, SPRO와 같은 부채비율 변수들을 종속변수로 이용하며, 둘째, K-IFRS 도입이 기업의 영업성과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ROA, CFO, $|\Delta ROA|$ 와 같은 성과 변수들을 종속변수로 이용하였다. 이하 회귀분석에서는 K-IFRS의 도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상장기업 표본(n=152)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굳이 K-IFRS 도입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기업의 규모나 질적 차이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비상장기업을 제외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4.1 K-IFRS 도입과 영업성과

<표 4-6>는 K-IFRS 도입이 ROA에 미친 영향을 검증한 회귀분석결과이다. 먼저 분양매출비율(COND)과 도입여부 더미변수(AD)의 상호작용변수(COND*AD)를 포함하지 않은 모형을 살펴보면, LEV_{t-1}이 유의한 음(-)의 회귀계수(t=-2.63)를 나타내었을 뿐, 주요 독립변수인 AD와 COND의 회귀계수는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상호작용변수(COND*AD)를 포함한 모형에서는 AD가 10%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회귀계수(t=-1.69)를 나타내어 K-IFRS 도입이후 ROA가 감소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해주고 있다.

한편, <표 4-7>은 K-IFRS 도입이 CFO에 미친 영향을 검증한 결과이다. COND*AD의 포함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모형에서 유의한 변수가 없었다. 회계기준의 변화가 기업실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리 놀랍지 않은 결과이다.

<표 4-6> K-IFRS 도입과 당기손익(ROA)

	종속변수 ROA		종속변수 ROA	
	계수	t값	계수	t값
상수항	-0.2949	-0.97	-0.2944	-0.97
AD	-0.0451	-1.65	-0.0537	-1.69 *
COND	-0.1509	-1.56	-0.2085	-1.43
COND*AD			0.0987	0.53
TAN	-0.1848	-1.32	-0.1800	-1.28
SIZE	0.0149	1.29	0.0150	1.29
LEV _{t-1}	-0.1824	-2.63 ***	-0.1801	-2.58 ***
FOR	0.1297	1.56	0.1270	1.52
수정R ² (F값)	0.0774 (3.11***)		0.0728 (2.69***)	

주1) 변수정의는 전과 동일

주2)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를 의미함.

<표 4-7> K-IFRS 도입과 영업현금(CFO)

	종속변수 CFO		종속변수 CFO	
	계수	t값	계수	t값
상수항	-0.0438	-0.23	-0.0442	-0.23
AD	0.0185	1.08	0.0251	1.26
COND	0.0550	0.91	0.0995	1.09
COND*AD			-0.0763	-0.65
TAN	0.0112	0.13	0.0075	0.08
SIZE	0.0004	0.15	0.0003	0.04
LEV _{t-1}	-0.0017	-0.04	-0.0034	-0.08
FOR	0.0538	1.03	0.0559	1.07
수정R ² (F값)	-0.0125 (0.69)		-0.0165 (0.65)	

주1) 변수정의는 전과 동일

주2)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를 의미함.

<표 4-8>은 K-IFRS 도입이 $|\Delta ROA|$ 에 미친 영향을 검증한 결과이다. 상호작용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모형의 경우, AD가 유의한 양(+)의 회귀계수($t=2.08$)을 나타내었다. 이는 K-IFRS 도입이 건설기업들의 영업성과 특히 ROA의 변동성의 폭에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그밖에 SIZE와 LEV_{t-1} 이 유의한 회귀계수($t=-3.45, t=6.14$)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상호작용변수를 포함한 모형의 경우에는 주요 관심변수들(AD, COND, COND*AD)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K-IFRS 도입과 당기손익의 변동성 ($|\Delta ROA|$)

	종속변수 $ \Delta ROA $		종속변수 $ \Delta ROA $	
	계수	t값	계수	t값
상수항	0.5506	3.00 ***	0.5511	3.00 ***
AD	0.0344	2.08 **	0.0257	1.34
COND	0.0120	0.21	-0.0467	-0.53
COND*AD			0.1006	0.90
TAN	-0.0409	-0.48	-0.0360	-0.42
SIZE	-0.0242	-3.45 ***	-0.0241	-3.43 ***
LEV_{t-1}	0.2578	6.14 ***	0.2601	6.18 ***
FOR	-0.0339	-0.67	-0.0367	-0.73
수정 R^2 (F값)	0.2507 (9.42***)		0.2497 (8.18***)	

주1) 변수정의는 전과 동일

주2)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를 의미함.

4.2 K-IFRS 도입과 부채비율

<표 4-9>는 K-IFRS 도입이 부채비율에 미친 영향을 검증한 회귀분석결과이다. 먼저 분양매출비율(COND)과 도입여부 더비변수(AD)의 상호작용변수(COND*AD)를 포함하지 않은 모형을 살펴보면, SIZE와 LEV가 유의한 양(+)의 회귀계수($t=3.13, t=11.19$)를, FOR가 유의한 음(-)의 회귀계수(-1.83)를 나타내었으나, 주요 독립변수인 AD와 COND의 회귀계수는 유의하지 않았다. 상호작용변수(COND*AD)를 포함한 모형 역시 분석결과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결국 K-IFRS 도입이 부채비율 전반에 대해서는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4-9> K-IFRS 도입과 부채비율

	종속변수 LEV		종속변수 LEV	
	계수	t값	계수	t값
상수항	-0.7001	-2.57 **	-0.7004	-2.56 **
AD	0.0201	0.82	0.0248	0.87
COND	0.1363	1.58	0.1678	1.29
COND*AD			-0.0541	-0.32
TAN	0.1554	1.24	0.1527	1.21
SIZE	0.0325	3.13 ***	0.0324	3.11 ***
LEV_{t-1}	0.6961	11.19 ***	0.6948	11.11 ***
FOR	-0.1371	-1.83 *	-0.1356	-1.80 *
수정 R^2 (F값)	0.5720 (34.64***)		0.5694 (29.52***)	

주1) 변수정의는 전과 동일

주2)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를 의미함.

한편, K-IFRS 도입이 총당부채에 미친 영향에 관한 <표 4-10>의 분석결과는 사뭇 다르다. 상호작용변수를 포함하지 않는 모형의 경우, COND가 유의한 양(+)의 회귀계수($t=2.02$)를 나타내었다. 이는 K-IFRS 도입이 건설기업들의 총당부채를 증가시켰다는 증거로서 본 연구에서 예상했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상호작용변수를 포함한 모형을 살펴보면, AD가 유의하지 않은 반면, COND*AD가 유의한 양(+)의 회귀계수($t=2.32$)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K-IFRS 도입으로 인한 총당부채가 증가효과가 특별히 분양매출 수준이 높은 기업들에서 두드러짐을 의미한다.

<표 4-10> K-IFRS 도입과 총당부채

	종속변수 PRO		종속변수 PRO	
	계수	t값	계수	t값
상수항	-0.0195	-0.37	-0.0191	-0.36
AD	0.0067	1.40	0.0002	0.04
COND	0.0341	2.02 *	-0.0094	-0.37
COND*AD			0.0744	2.32 *
TAN	-0.0038	-0.16	-0.0002	-0.01
SIZE	0.0008	0.38	0.0008	0.42
LEV _{t-1}	0.0395	3.25 ***	0.0412	3.44 ***
FOR	-0.0095	-0.65	-0.0115	-0.80
수정R ² (F값)	0.1000 (3.80***)		0.1264 (4.12***)	

주1) 변수정의는 전과 동일
 주2)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를 의미함.

<표 4-11> K-IFRS 도입과 보증손실총당부채 등

	종속변수 SPRO		종속변수 SPRO	
	계수	t값	계수	t값
상수항	-0.0077	-0.20	-0.0075	-0.20
AD	0.0028	0.83	-0.0007	-0.18
COND	0.0318	2.63 ***	0.0078	0.43
COND*AD			0.0411	1.78 *
TAN	0.0002	0.01	0.0022	0.13
SIZE	0.0004	0.26	0.0004	0.29
LEV _{t-1}	0.0203	2.34 **	0.0213	2.46 **
FOR	-0.0086	-0.83	-0.0098	-0.94
수정R ² (F값)	0.0619 (2.66***)		0.0757 (2.77***)	

주1) 변수정의는 전과 동일
 주2)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를 의미함.

<표 4-11>의 결과 역시 <표 4-10>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종속변수를 총당부채로 사용했는지 또는 특수한 총당부채만을 사용했는지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에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은 생략하고자 한다. 다만, <표 4-11>의 결과를 통해 총당부채 중에서도 보증손실총당부채 등과 같은 부채들이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2011년부터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가 상장기업에 대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이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적용에 따른 혼란 역시 감수해야 할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제조업이나 상품매매업과는 달리 건설업만의 특성으로 인해 국제회계기준 도입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K-IFRS 도입 초기에 해당하는 비교적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 K-IFRS 도입이 재무구조와 영업성과 측면에서 건설기업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K-IFRS 도입은 영업현금(CFO)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당기순손익(ROA)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순이익 변동폭의 크기($|\Delta ROA|$)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K-IFRS 도입에 따라 ROA가 감소하였으며, ROA 변동 폭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K-IFRS 도입은 부채비율(LEV)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총당부채(PRO, SPRO)에는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IFRS 도입에 따라 전반적인 부채비율에는 변화가 없으나, 총당부채 등의 인식가능성은 커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총당부채의 증가효과는 분양매출 수준이 높은 기업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시공능력평가제도에 의한 규제 상황에서 재무적 요인이 평가요소의 일부로 고려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K-IFRS가 건설업에 속한 기업들의 시공능력평가에 어떠한 미칠지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투자자들에게 K-IFRS 적용에 따른 건설업 재무제표의 변화 내용을 파악하도록 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기준제정기구 역시 K-IFRS 적용에 따른 문제점이나 건설산업 전체에 미칠 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개별기업이 진행 중인 개별계약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기업의 이익변동성을 완화시킬 다양한 기회요인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보증손실총당부채 역시 보증금액의 크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추후 이와 같은 추가적인 변수들을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둘째, K-IFRS의 도입에 따른 효과를 건설업과 건설업 이외의 산업으로 대비하여 산업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건설업에 국한된 특수성을 갖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K-IFRS 도입이 연결재무제표 차원에서 건설업에 속한 기업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지 못했다. 넷째, K-IFRS 도입 기간이 짧은 탓에 표본기간이 불충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는 추후 자료 축적에 따라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다섯째, K-IFRS 도입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본질가치가 변한 것은 없다. 하지만 실제로 투자자들이 장부상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살펴보는 것 또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김한수·오명전·김인숙(2010),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건설업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회계저널, 제19권 제5호, 245-280.
- 유순미·김현지(201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건설업 도입효과: 건설기업 사례”, 회계저널, 제19권 제2호, 445-481.
- 임종석·이강오(2009), 「건설업회계와 세무실무」, 어울림.
- 임희주(2011), “K-IFRS 도입이 건설업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병욱·최보람(2011), “건설계약에 적용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세무상 쟁점의 분석”, 세무와회계저널, 제12권 제3호, 81-104.
- 한국회계기준원 기업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의 인식”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 “건설형 공사계약”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
한국회계기준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1호 “건설계약”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7호 “충당부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9호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해석서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